



지금, 호주는?

NSW주, 2030년 탄소 배출 50% 감축 목표 설정

NSW(New South Wales)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주 정부의 목표인 같은 기간 35%를 크게 높인 것으로 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려는 주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다 ...

〈ABC News, (9.29)〉

MORE >



젊은이 유출이 이어지는 「시즈오카와 하마마츠」의 고뇌
〈동양경제, (9.27)〉

일본 최신동향

- 부족한 IT인재는 이민 수용으로 해결, 디지털청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
- 군마현 지사 「법적조치검토」, 매력도 랭킹 44위에 대하여
- 가장 월급이 많은 지자체 단체장은 지자체 1,788개 평균보다 2배 높아
- 전국지자체 고향납세 랭킹, 수입액 1위는 135억원 이상

MORE >

프랑스 최신동향

- 튀빙겐시, SUV 차량 주차비 600% 인상 예정
- 프랑크푸르트, 피자 박스에 쓰레기 보증금 부과 검토
- 공유임대 전동킥보드 원격 강제 감속 파리 전역으로 확대
- COVID-19 계기 유행한 임시 야외테라스 영업, 대다수 폐쇄 일부 유지

MORE >



독일, 소외계층 위한 COVID-19 휴가 지원

〈Federal Ministry for Family, Seniors, Women and Youth, (9.21)〉



시드니시, 거리에 인종차별 반대 표지판 설치
〈시드니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9.30)〉

호주 최신동향

- NSW주, 2030년 탄소 배출 50% 감축 목표 설정
- 주 정부, 연방정부의 석탄 발전 보조금 계획에 반발
- 서호주주, 상원의원 선출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 수도준주(ACT), Stealthing을 최초로 불법화

MORE >

영국 최신동향

- 정부, 공공 거리시설물 및 건물에 5G 무선 키트 도입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참가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예정
- 영국 정부와 웨일즈 정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완지 베이 시티딜의 혁신 및 저탄소 성장 프로그램을 승인
- 영국지방정부협의회, COVID-19 회복이 놓여준 지역에 2030년까지 510억 파운드의 경제적 부양 가능성 시사
- 웨일즈 정부, 2만여 개 임대용 저탄소 사회주택을 짓기 위한 예산을 2배로 증액

MORE >



노팅엄셔 카운티 지자체,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제안서를 승인
〈Nottinghamshire County Council, (7.19)〉



LA시의회, 지역경제와 지역 투자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 노력
〈Los Angeles Daily New, (10.5)〉

미국 최신동향

- 뉴욕시, 교사 등 교직원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강제 시행 발효
- LA시, Cool Street LA 프로그램 시행
- LA시, 실내 업종 이용자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 캐나다 정부, 항공, 선박, 철도 이용 시 백신 접종 의무화 발표

MORE >

중국 최신동향

- 2021년 국경절 연휴 관광시장 동향 발표
- 중국, 혁신 분야에서 작년 14위에서 12위로 상승
- 겨울철 대비 전기료 인상 폭 20% 이하로 제한
- '중국 전면소강백서' 빈부격차 여전하나 도농 및 지역별 소득격차 줄었다고 강조

MORE >



베이징시, 지하철 탑승 시 개인형 이동 수단 휴대 불가
〈양스차이징, (9.2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일본 최신동향 >>



젊은이 유출이 이어지는 『시즈오카와 하마마츠』의 고뇌

20개의 정령지정도시는 대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 그 규모는 차이가 크다. 최대 인구 도시는 요코하마시로 약 376만 명인 반면, 최소 인구 도시는 시즈오카시로 약 69만 명이다. 시즈오카시는 요즘 젊은 층 유출이라는 큰 과제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동양경제, (9.27)〉 [MORE >](#)



부족한 IT인재는 이민 수용으로 해결, 디지털청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

디지털청은 9월 28일 디지털 사회 형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인 『디지털사회구성회의』 제1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재를 이민 수용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

〈전파신문, (9.28)〉 [MORE >](#)



군마현 지사 『법적조치검토』 매력도 랭킹 44위에 대하여

민간연구기관 『브랜드종합연구소』는 2021년도 47개 도도부현 매력도 순위를 발표했다. 군마현이 하위인 44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야마모토 잇타 군마현 지사는 10월 12일 임시기자회견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법적 조치 검토를 밝혔다 ...

〈일간현대, (10.17)〉 [MORE >](#)



가장 월급이 많은 지자체 단체장은 지자체 1,788개 평균보다 2배 높아

동양경제사는 총무성이 발표한 『지방공무원 급여 실태조사 2020』에 근거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장 급여 순위를 500위까지 작성한 결과, 급여가 가장 높은 단체장은 지자체 1,788개 평균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양경제, (10.10)〉 [MORE >](#)



전국지자체 고향납세 랭킹, 수입액 1위는 135억엔 이상

COVID-19 영향으로 집에서 지내는 사람이 늘어나 고향납세 수입액이 대폭 증액되었다. 2020년은 건수, 금액 모두 대폭 증액, 기부 건수는 전년 대비 137%, 금액은 149% 증가했다 ...

〈겐토샤, (10.11)〉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프랑스 최신동향 >>



Corona-Auszeit
für Familien

독일, 소외계층 위한 COVID-19 휴가 지원

독일연방정부는 COVID-19로 휴가를 충분히 즐길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가족을 위해 최대 일주일간의 휴가에 대한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

〈Federal Ministry for Family, Seniors, Women and Youth, (9.21)〉 [MORE >](#)



튀빙겐시, SUV 차량 주차비 600% 인상 예정

튀빙겐시는 거주자 주차 공간에 대한 주차비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특히 SUV 차량 같은 중형 차량의 경우 기존 30유로에서 180유로로 6배 인상할 예정이다. 이로써 튀빙겐시는 거주자 주차 공간에 대한 주차비 정책을 바꾼 최초의 독일 지자체가 되었다 ...

〈Spiegel, (9.21)〉 [MORE >](#)



프랑크푸르트시, 피자 박스에 쓰레기 보증금 부과 검토

최근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공원 등에서 피자를 사다 먹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피자 박스가 무질서하게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프랑크푸르트시는 피자 박스에 대해서도 50센트의 쓰레기 보증금(deposit)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

〈Faz.net, (9.30)〉 [MORE >](#)



공유임대 전동킥보드 원격 강제 감속 시스템, 파리 전역으로 확대

전동킥보드 GPS 시스템을 활용, 보행자가 많은 도심 일부 지역 진입 시 운행속도가 자동으로 10km/h 미만으로 떨어지도록 공유임대 운영사 원격감속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파리는 적용 범위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Numerama, (9.9)〉 [MORE >](#)



COVID-19으로 유행한 임시 야외테라스 영업, 대다수 폐쇄

COVID-19 시기 영업 지원을 위해 점용료 없이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여 크게 유행했던 임시 설치 야외테라스가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9월 30일부로 폐쇄 수순을 밟고 있지만,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등 몇몇 도시들은 1개월 또는 연말까지 점용료 무료기간을 연장하여 테라스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LCI, (9.30)〉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호주 최신동향 >>



NSW주, 2030년 탄소 배출 50% 감축 목표 설정

NSW(New South Wales)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주 정부의 목표인 같은 기간 35%를 크게 높인 것으로 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려는 주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다 ...

〈ABC News, (9.29)〉 [MORE >](#)



주 정부, 연방정부의 석탄 발전 보조금 계획에 반발

연방정부의 전력망 신뢰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소에 대해 보조금을 허용하려는 계획이 주 및 준주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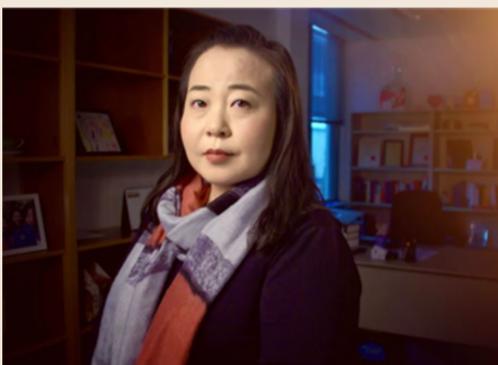
〈ABC News, (9.24)〉 [MORE >](#)



서호주주, 상원의원 선출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서호주주 Mark McGowan 총리는 상원의원 선출 투표 시스템을 '한 표, 동일 가치'에 입각해 전면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실제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Daylight Savings Party의 후보는 단 98표로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어 기존 시스템의 비민주성과 변칙성이 지적되었다 ...

〈The West Australian, (9.15)〉 [MORE >](#)



수도준주(ACT), Stealthing을 최초로 불법화

수도준주(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호주에서 최초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Stealthing)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

〈ABC News, (10.8)〉 [MORE >](#)



시드니시, 거리에 인종차별 반대 표지판 설치

시드니시는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요 도심에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Racism Not Welcome)가 적힌 거리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

〈시드니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9.30)〉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일본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



중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영국 최신동향 >>



공공 거리시설물 및 건물에 5G 무선 키트 도입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참가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예정

정부는 공공 거리시설물 및 건물에 5G 무선 키트 도입을 위한 2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GOV.UK, (9.9)〉 [MORE >](#)



영국 정부와 웨일즈 정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완지 베이 시티딜의 혁신 및 저탄소 성장 프로그램을 승인

영국 정부와 웨일즈 정부는 5,870만 파운드 규모 스완지 베이 시티 딜(Swansea Bay City Deal)의 혁신 및 저탄소 성장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

〈Localgov, (9.24)〉 [MORE >](#)



영국지방정부협의회, COVID-19 회복이 농어촌 지역에 2030년까지 510억 파운드의 경제적 부양 가능성 시사

영국지방정부협의회(LGA)가 의뢰한 Pragmatix Advisory 기관의 연구 보고서는 COVID-19로부터의 회복이 2030년까지 영국 농어촌지역에 510억 파운드라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부양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LocalGov, (9.14)〉 [MORE >](#)



웨일즈 정부, 2만여 개 임대용 저탄소 사회주택을 짓기 위한 예산을 2배로 증액

웨일즈 정부는 2만여 개의 새로운 저탄소 사회주택 마련을 위한 예산을 2배로 증액하였다. 2021~22년 회계연도 동안 2억 5천만 파운드의 기금이 새로운 품질 및 환경 표준에 따라 저렴한 친환경 주택을 짓는데 제공될 예정이다 ...

〈GOV.WALES, (8.4)〉 [MORE >](#)



노팅엄셔 카운티 지자체,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제안서를 승인

노팅엄셔 카운티 지자체 정책위원회는 10월부터 지자체 직원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근무체제로 전환하는 제안서를 승인하였다 ...

〈Nottinghamshire County Council, (7.19)〉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미국 최신동향 >>



LA시의회, 지역경제와 지역 투자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 노력

LA시의회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자금 융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은행 설립의 첫걸음으로 사업 컨설턴트를 찾는 방안에 동의했다 ...

〈Los Angeles Daily New, (10.5)〉 [MORE >](#)



뉴욕시, 교사 등 교직원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강제 시행 발효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 중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직 또는 휴직을 해야 하는 행정 명령이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종교적, 의학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사와 교직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

〈AP News, (10.5)〉 [MORE >](#)



LA시, Cool Street LA 프로그램 시행

LA시는 Cool Street LA 프로그램을 LA 한인타운 등을 포함하여 두 번째 대상지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열섬현상이 심한 도심지를 대상으로 가로수를 심고 열전도율이 낮은 포장재로 도로를 포장하여 온도를 낮추는 프로젝트이다 ...

〈CBS LA, (10.4)〉 [MORE >](#)



LA시, 실내 업종 이용자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LA시는 식당, 극장, 체육, 오락 등 실내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 증명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했다. 11월 말부터는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

〈LA times, (10.6)〉 [MORE >](#)



캐나다 정부, 항공, 선박, 철도 이용 시 백신 접종 의무화 발표

캐나다 정부는 10월 30일부터 항공기, 선박, 철도의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객 또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이하 아동은 예외이며, 백신 접종 증명이 없는 경우 COVID-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CNN, (10.7)〉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일본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



중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중국 최신동향 >>



2021년 국경절 연휴 관광시장 동향 발표

문화여유(관광)부는 10월 7일 10.1~7 전국 국내 관광객은 5억 1,500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COVID-19 발생 전 같은 기간의 70.1% 수준을 회복하였다고 발표했다 ...

〈문화관광부, (10.7)〉 [MORE >](#)



중국, 혁신 분야에서 작년 14위에서 12위로 상승

세계지재권기구(WIPO)가 9월 20일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 분야에서 중국의 순위는 작년 14위에서 올해 12위로 상승하였으며, 중국은 30위권 국가 중 유일한 중등 소득 경제체제 국가이다 ...

〈인민망, (10.8)〉 [MORE >](#)



겨울철 대비 전기료 인상 폭 20% 이하로 제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올겨울과 내년 봄을 대비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폭 잡기에 나섰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겨울·봄철 전력 및 석탄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기본 생활 및 경제 안정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 전기료 상·하한 폭을 모두 20% 이하로 재조정했다 ...

〈홍성신문, (10.9)〉 [MORE >](#)



베이징시, 지하철 탑승 시 개인형 이동 수단 휴대 불가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9월 28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 전동휠체어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 수단(전동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의 휴대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

〈신경보, (9.27)〉 [MORE >](#)



‘중국 전면소강백서’, 빈부격차 여전하나 도농 및 지역별 소득격차 줄었다고 강조

‘중국 전면소강백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인 중국 지니계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득 격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

〈국가통계국, (9.29)〉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